

## 6/24(금) 시편 90-94편 주는 우리의 거처 [지혜로운 마음]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브루그만, 시편 사색

시인은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봅니다(90:12).

이는 삶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며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위임하는 것입니다(90:2, 91:16, 92:5-6, 8, 93편).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90:10)”

시인은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깨닫습니다(90:12).

인간의 삶은 <한순간, 잠깐, 순식간>으로 점철되고(90:4, 5, 9),

<죄악, 은밀한 죄, 노, 소멸, 분내심, 노여움, 진노>로 괴롭습니다(90:7-8, 11).

그럼에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homeless, 90:1-2, 91:3-7, 94:14, 요14:18).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 피난처, 도피처가 되십니다(91:4, 9, 94:22).

안정감을 느낄 가정과 소속들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주관자(home-maker) 되십니다.

<거처>에 대한 갈망은 주님과의 <교제>로만 해결됩니다(91:14-15).

시인은 하나님만이 참된 <거처>임을 고백합니다(91:1-2, 92:12-13, 94:17).

세상의 은자와 철학자들도 인생무상을 깨닫지만,

<지혜로운 마음>의 차별성은 <앎>에서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유한하여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90:13-17, 92:14, 94:19).

그분 안에서 <거처>를 발견하고, 인정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91:11)”

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① 인생의 유한함과 괴로움을 깨닫고 있습니까?

② 나와 우리 가정의 영/혼/몸이 안착할 참된 <거처>를 발견하였습니까?

**시편4권** (90–106편)

편	유형	편	유형
90	공동체 탄식시	99	찬양시
91	신뢰의 노래	100	찬양시
92	개인 감사시	101	왕조시편
93	찬양시	102	찬양시 요소를 지닌 개인 탄식시(합회)
94	공동체 탄식시	103	찬양시
95	찬양시	104	찬양시
96	찬양시	105	구속사 시편(찬양시)
97	찬양시	106	구속사 시편
98	찬양시		